

# 기술 이전·재활용 자원 지원...혁신도시 기관들 '민간 교류' 활발

### 빛가람혁신협의체 '민간-공공기관 협력 우수사례 공유대회' 개최 전력거래소·aT 등 5개 기관...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사업 등 소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기관들이 우수한 기술과 자원을 바탕으로 민간 협업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빛가람혁신협의체는 지난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나주 본사에서 '민간-공공기관 협력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열고 5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빛가람혁신협의체는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협의체이다. 이날 대회에는 전력거래소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a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경영체계를 기반으로 협력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신정부의 혁신 방향에 부응하는 민·관 협업체계 고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전력거래소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친환경 영업을 실천하는 '커피 찌꺼기(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가게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모아 민간 업체가 친환경 비료 또는 바이오 연료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12곳을 포함한 전남 공공기관 14곳과 커피 전문점 27곳, 비료·팹릿(화물들) 업체 2곳이 협력체계를 구성했다. 커피 찌꺼기 수거는 나주 재활센터가 맡아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냈다. 구성원들은 올해 커피 찌꺼기 15t을 모아 온실가스 5t을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관련 모바일 앱을 개발해 사업의 디지털화를 꾀한다. 지난 8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회의를 벌인 뒤 지난달 말까지 나주에서 5.8t, 광주에서 2.6t의 커피 찌꺼기를 모았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공공기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전남지역으로 확산해 민간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3만 가입자를 지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국내 최대 포털과 연계한 안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퇴직급여·

퇴직수당 청구 안내를 하고 있다. 사학연금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은 퇴직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지난 2020년 8월 네이버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모바일 채널을 카카오톡과 KT 등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사학연금은 초고령화 시대 은퇴자들을 위해 포괄적 연금통계 민·관 공동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여기저기 흩어진 연금 자료와 통계를 내년부터 산업계 등 민간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안심 스마트점포'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안심 스마트점포는 출입부터 결제까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과정이 무인화·자동화된다. 구축단계부터 보안 기능을 내재해 고객

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나주 본원에 도난방지, 출입통제, 인증·결제 기술이 집적된 실증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준수를 종합 지원하며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국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공유대회에서 aT는 농식품 관련 민·관의 보유 데이터를 거래하는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KADX'(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를 소개했다. 영세 외식 사업체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소액대출 상품도 개발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산악지역 조난자 전파분석을 골자로 한 '지능형 산악수색지원시스템 사업'을 민·관 협업사업으로 들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KDN '상생 마켓'서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돕는다

### 수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 홍보

한전KDN은 지난 21일 광주·전남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를 넓혀주기 위한 'KDN 상생 마켓(사진)'을 나주 본사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천을 받은 2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먹거리와 식자재, 수공예품, 친환경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aT,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 복지 소외계층 발굴·먹거리 지원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증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비영리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꾸준히 지역 사회공헌을 펼친 기업이나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aT는 먹거리 분야 고유 업무와 연계한 사회공헌을 벌여왔다. 올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5등급'을 획득했다. aT는 지난해 4월 ESG 경영 방침을 선포하고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aT 좋은 이웃들'을 운영하고 지역 아동을 위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해왔다. 김준진 aT 사장은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취득은 공사의 다양한 ESG 활동에 대한 지역 사회로부터의 화답으로 매우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 사우디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

### 수교 60주년 맞아 협약 체결

한국전력이 한국-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사우디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에 나선다. 한전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CWA 파워와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을 위한 협력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업은 지난 10월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계약을 통해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석을 마련하고 강력한 동반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전은 오는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하는 사우디 라빅 중유화학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같은 날 한전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와도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홀딩스 등이 '팀 코리아'를 구성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사우디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연간 120만t 규모 그린수소·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가 우수한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전 측은 "정부의 2030 온실가스감축과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달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국내 수소·암모니아 수요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수소·암모니아의 안정적 조달처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사학연금, 재능나눔 수기 공모 다음 달 11일까지 제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다음 달 11일까지 사학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사회공헌 봉사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2022년도 재능나눔 캠페인' 참가작을 받는다. 올해 1월부터 공모 기한까지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학연금 수급자가 참가 대상이다. 한 해 동안 환경정화나 어르신 돌봄, 소외계층 학습 지도 등을 한 경험을 공유하면 된다. 봉사활동 사진과 소감, 수기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tpwelfare@tp.or.kr)이나 우편, 구글 폼 등으로 낼 수 있다. 참가자 모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진다. 대상 1명에게는 20만원 상당 상품권,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 15만원 상당 상품권을 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퇴직교직원 산림복지전문가 전직 지원을 위한  
**국립나주숲체원·사학연금 대전센터 업무협약식**

일시 : 2022. 11. 21.(월) 14:00  
장소 : 국립나주숲체원

사학연금, 나주 숲체원과 특화교육 협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난 21일 국립나주 숲체원에서 산림복지 전문가 직업 체험 등 지역 특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송홍수(오른쪽) 사학연금 대전센터장과 황인욱 숲체원 원장. <사학연금 제공>

1. 화순, 전원주택 부지, 매매
2. 약 4800평
3. 매매 - 16억 8천만원
4. 문의 . 010 - 3605 - 5000